

중장기 경제 전망과 지식 기반 경제 구축

최근에 들어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는 듯하다. 얼마 전에는 중장기 한국 경제 전망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200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최고 5%대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과다 추정 또는 과소 전망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과거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1980년대를 제외하고 1970년대와 1990년대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잠재 성장률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서 실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국내 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 우선 우리 경제는 수입유발적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부품·소재 등 중간재와 기계류 등 자본재 산업의 낙후로 생산 및 수출 확대가 수입을 유발하는 구조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고유가 시대 및 향후 온실 가스 배출 규제와 같은 세계적 환경 규제 여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투입 요소의 양적 확대에 의존하는 저효율 구조도 심각한 문제다. 임금, 물류비 등 생산 요소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국내 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력이 취약한 것이 이의 근본 원인이다.

두 번째는 국내 산업 구조의 서비스화 추세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8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급속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이 제조업보다 커졌으며, 2008년경에는 서비스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성숙됨에 따라 이른바 ‘서비스 비관론’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경제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보몰(Baumal)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주장이다. 실제 국내 경제의 산업 연관 효과 분석에 의하면 첫째, 생산유발계수의 경우에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 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각 산업의 직접 고용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크지만 각 산업의 발전이 전산업의 취업을 유발시키는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셋째, 노동 생산성 역시 각 산업 자체의 단순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관 생산성 모두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작게 나타난다. 특히 연관 생산성의 경우에 제조업은 70년대 이후 상승 추세에 있으나 서비스업은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 한편 경제의 서비스화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1981~1997년 기간중 서비스 산업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연평균 7.3%로 제조업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3.9%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용 흡수 능력이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산업 구조 변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변화가 제공하는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경제 여건 변화는 크게 시장의 세계화, 생산요소의 지식화, 경제 활동의 사이버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수요 폭증을 가져오는 '소비 붐' 시대를 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의 'S 곡선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S 곡선 이론은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한 공급 요인 변화는 수요 측면에서 기간별로 S 형태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향후 10여년은 지난 10여년 동안 기술 혁신을 이루어 온 정보 통신을 비롯한 신기술로 인해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어 그 수요가 급속히 성장하는 소비 붐 시대가 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 미국 경제가 90년대에 들어서 장기 경기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제품 수요의 증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국내 경제의 지식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소 생산성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나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문제는 모두 기술력 향상이라는 지적 능력 제고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전망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내 경제의 지식 기반화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